

목양 칼럼

일본은 왜 전도하기 어려운가?

일본의 인구는 1억 3천만명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전체 인구의 0.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hindu교 국가로 알려진 인도만 해도 14억 인구 중 3%가 그리스도인인데 말입니다. 일본에 최초로 복음이 전해진 것은 1500년대 중반 포르투갈 선교사 하비에르에 의해서입니다. 각 지역의 영주들은 기독교 신앙을 수용하여 기독교는 일본 땅에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500년대 말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면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신앙으로 결속하는데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1594년에 교토에서 52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1597년에 교토에서 서양 선교사와 그리스도인들 26명을 체포하여 800km를 끌고 나가사키에 가서 죽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잔인한 수법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뒤 그의 뒤를 이룬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기독교 말살 정책을 이어갔습니다. 한 사람씩 세워놓고 예수의 사진을 놓고 발로 밟고 가는 사람은 살려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이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어나면 지역 사찰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결혼이나 장례도 사찰을 통해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진이나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도움을 얻지 못하고 고립되게 했습니다. 일본인들에게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사회적 고립을 겪을 뿐만 아니라 조상을 배반하는 일로 여기게 했습니다. 이런 박해가 200년 이상 계속되어 오면서 일본에서는 자연히 기독교 인구가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일본을 방문하면서 교토에서 52명이 순교한 순교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사키에서 순교한 순교자 26인의 순교 기념관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가 캠퍼스에서 예수님을 만나 헌신한 우리 총회 일본노회 소속 41개 교회 사역자들이 참으로 귀하게 보였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더 좋은 직장과 더 편안한 삶의 꿈을 포기하고 일본선교를 위해 헌신한 그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에 이런 무모한 결심을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정기모임 안내

집회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9:30
	3부 예배	오전 11:00
	영어(CCM)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요일-토요일)	본당
CCM 청년부 모임	오후 7:30 (금요일)	예일 카페
영어 아침 기도회	오전 7:30 (매월 첫째 토요일)	CCM 예배실
목장모임	오후 8:30 (매월 셋째 금요일)	각 목장별로
제자훈련	각 동반자별로	각 동반자별로
주일학교	영아유치부 (5세 이하)	오전 11:00
	유년부 (1-6학년)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모임 오후 07:30 (금요일)
Silver Club	목요일 오전 10:00- 오후 2:00	친교실
Mommy & Me	금요일 오전 10:00-11:30	유치부 예배실
뉴욕예일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10:00-12:00	교육관

예수님이 제일이신 교회

뉴욕예일장로교회
YAL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NY

VISION 2024 HEALING MARCH

뉴욕예일장로교회

표어: 예수님 제일 (마 16:16)



- 영감있는 예배
- 십자가 사랑의 교제
- 땅끝까지 복음전파
- 천국일꾼 훈련양성
- 치유와 회복공동체
- 능력있는 기도 생활

담임목사 김중훈

Senior Pastor: Rev.
Jong Hoon Kim, D.Min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 11801

Tel. (516)938-0383
Fax. (516)938-3824
<https://YaleChurch.org>

주일예배

제 32권 29호 주후 2024년 7월 21일

예배 시간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00
인도자	김민목사	백에스라목사	우영주목사
예배의부름	인도자 (요 4:24)		
예배 기원	인도자		
신앙고백	다같이 (사도신경)		
찬송	44장		
기도	이태호집사	김근태장로	정수영장로
성경봉독	행(Ac.) 16:6-10		
찬양	예일관악단	글로리아	할렐루야
말씀	비두니아의 문이 닫힐 때 김중훈목사		
찬송	445장		
봉헌	다같이		
봉헌찬송	630장		
예일 소식	인도자		
찬송*	635장		
합심기도*	다같이 (감사/결단/축복)		
파송의말씀	인도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축도*	김중훈목사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수요예배 (F.M.A. 성경공부)

7월 24일 오후 8:30
• 기도: 정수미관권사
• 말씀: 김중훈목사
• 다음주 기도: 김경미권사

새벽기도회 오전 5:30

• 말씀: 김중훈목사

다음 주일 기도

• 1부: 한진집사 • 2부: 윤희주장로 • 3부: 지재홍장로

7월 안내위원

• 1부: 예배부 • 2부: 박민애권사 • 3부: 최훈집사, 김신애권사

- 모든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 **수요예배:** F.M.A. 성경공부 '고린도전서'
- **2024 하반기 제직 임명**
 - * 남자서리집사: 김두영 김유성 김이삭 이정석 최데니
 - * 여자서리집사: 김보라 김현정 이승희 이우영 조운진 지은혜 천명지 홍미래
- **제직회:** 7월 21일(오늘) 오후 2시, 본당
- **교역자 동정:** 유명근목사 휴가. (7/15-7/26)
- **7월 목장예배:** 7월 26일(금) 오후 8시 30분, 각 목장별로
 - * 7/24 수요예배 후, 마을지기 목자 총무모임 및 교안배부
- **노량진교회 고등부 비전트립팀 민박 신청:** 백에스라 목사 & 김동환 장로
- **2024 예일 여름학교:** 7월 8일(월) - 8월 16일(금), 평일 오전 9시 - 오후 3시
- **강단꽃 장식:** 구속자권사(남편 생일) 김명숙권사(아들 Brendon 생일)
 사랑의 식탁: 구속자권사(남편 생일) 박은덕집사(손녀 강지아 생일)
- **식사기도 담당자 및 식당봉사**
 - 식사기도: 이번주: 김준택장로 다음주: 김광균장로
 - 식당봉사: 이번주: 6마을 다음주: 7마을
- **8월 헌금위원**
 - 1부예배: 박진두집사 한문차집사 2부예배: 김선태집사 정수미란권사 김오신권사 박민애권사
 - 3부예배: 김영애권사 김정현권사 유희정권사 김동욱집사 박보라집사 전복희집사
- **동시통역:** Live English interpretation for sermon is available
 9:30am & 11am Services. Zoom QR Code: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시 37:23-26)

본문은 다윗이 노년에 쓴 고백의 시편이다. 다윗은 지난 평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셨음을 고백한다. 우리는 그의 세가지 고백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인도자로 인정하고, 그 인도의 손길에 우리 삶을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 삶에 부어주시실 것이다.

1.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23절)
 - 1)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삶을 평안케하시고 걸음을 책임지신다.
 -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의지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 2)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쉬지 않고 유혹한다. 그러나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의 인도 아래 견고하다.
 -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마음에 새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그분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될 것이다 (시편 119:105).
2.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의 크고 강한 손으로 굳게 붙드신다. (24절)
 - 1)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늘 험통한 삶을 꿈꾸지만 인생에는 늘 힘든 순간이 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넘어진다.
 - 2) 의인도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크고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세우신다.
 - 의인도 사단의 공격과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마저 사랑하시며, 넘어진 자를 굳게 잡고 일으켜 세우신다.
 - 우리가 그 손길을 기억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승리를 허락하신다.
3.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영원토록 책임지신다. (25절)
 - 1) 우리는 계속해서 밀려오는 어려움 앞에서 좌절한다. 계속되는 고난 앞에 지친다.
 - 다윗도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다 (시 13)
 - 2) 그러나 지난 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셨음을 깨닫게 된다.
 - 우리는 고난의 순간에 근시안이 되어 평정심을 잃고 불안해 한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된다. (다윗도 나이가 들어서 깨달음)
 - 결국에는 하나님께 매인 우리가 웃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결론]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잘 걸어가고 있는지 몰라서, 현재의 문제 때문에, 미래를 알 수 없어 늘 불안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걸음에 늘 동행하신다(23절). 현재의 문제 가운데 넘어져 있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24절). 미래를 영원토록 책임지신다(25절).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 줄 수 있다. (26절) 시편 37편 23절-26절 말씀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누리는 축복과 사랑을 담대히 흘려보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자.

새가족

- 김송희집사 (사랑목장, 사랑선교회, Woodbury, NY 11797)
- 황정숙집사 (물댄동산목장, 1선교회, Hicksville, NY 11801)

교우동정

- 한국방문 이배준집사&박은혜집사 김동환장로

행사예고

- 08/07(수) 6선교회 헌신예배
- 08/18(주일)-20(화) 유년부 수련회
- 08/18(주일)-22(목) 중고등부 수련회
- 08/21(수) 4선교회 헌신예배

방송설교

- KRB FM 87.7/94.3 (라디오): 매주 화요일 오전 6:30-7:00
- Cablevision Ch. 1156 (텔레비전): 주일 오후 9:00-9:30 (재방송, 월요일 오전 6:30-7:00) CTS
- Direct TV Ch. 2092 (텔레비전): 주일 오후 8:30-9:00 (재방송, 월요일 오전 9:30-10:00) CTS